## 쓰레네 얼마나 약고 폐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70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는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시락'을 곽밥 이라 부르는 북녘사람들이 묻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설명을 해주어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사람들입니다.

우리 돈 '100원'이 없어 배를 곯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음식쓰레기'가 무엇이냐고..

생각만으로도 낯이 뜨거워집니다. 버릴 것은커녕 입에 들어갈 것도 모자라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따져보면 그리 오래 전에 생긴 말도 아니고 국어사전에 나올 말도 아닙니다.

'음식'과 '쓰레기'는 만나지 않았어야 할 말입니다. 어서 헤어져야 할 말입니다. 쓰면 쓸수록 죄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과 땅과 하늘 모두에 죄가 되는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잔반이 줄면 음식의 질이 좋아집니다.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잔반을 줄여 주 세요.

> 먹을 때는 건강생각 버릴 때는 환경생각

## 생활쓰레기 ?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70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생 활쓰레기는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배출량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버려지는 것들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 : 배출원별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키의 비율

**조 기 정** 음식물 쓰레기가 약 <mark>50%</mark>

사무실 종이류가 약 50%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가 약 75.85%

## 그림으로 보는 생활폐기물의 분해기간

